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2 1.2.3.4 통권 제78호 www.ksm.or.kr

**기획** 4.11총선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적 지원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추진되어야



표지사진 “보람”  
미 대사관 초청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됩니다

2012년을 맞이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4월이라 하면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그래서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웬지 이 말이 요즘처럼 와 닿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겨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잠시 소강국면에 들어갔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계기로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윤달의 합의(Leap Day Deal)’ 라는 표현에서도 느껴지듯 2.29 북·미간의 비핵화 합의가 몇 년 만에 들리는 반가운 봄소식이라 기대했는데 한 달도 못가고 잊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에 대한 북한의 초강경 대응 그리고 연이은 고강도 대북 압박정책 등 상호불신에 의한 악순환의 늪으로 한반도 전체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지 매우 염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잔인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누구까요? 바로 북한 주민들일 겁니다.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영양식 24만 톤은 이미 백지화 되어 버렸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상당기간 그 동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 7월 이후 민간단체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되어 왔던 식량(밀가루)지원도 정부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일은 여전히 우리들의 몫입니다.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생명과 인권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지만, 수백만의 북한 동포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도 역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북 지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다시 불거지겠지만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실천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인도적 과제입니다.

꼬일 대로 꼬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현실적인 해법은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재개일 것입니다. 50개 대북지원단체의 연대기구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제19대 총선후보 246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북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 상황 등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단하거나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지원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탬으로써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이 멈춰 서지 않도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또한 힘을 보태고 쉽 없이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강영식**

## 목차

- 인터뷰** 04 지금 만나러 갑니다
- 06 새길교회 방문기
- 연재** 08 남한의 '가장' 과 북한의 '세대주'
- 사업보고** 10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헌 교과서 수거에 동참합니다!
- 12 북녘 어린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세요
- 기획** 13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추진되어야 - 4.11 총선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 북한의 오늘** 16 북한 식수 및 위생환경 실태
- 인턴후기** 17 행복을 먹고 자란 두달
- 사업일지** 18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후원자명단** 19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2년 1+2+3+4월호 통권 제78호 | 발행인 |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 편집인 | 강영식 | 발행일 | 2012년 4월 30일  
 | 주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 전화 | 02)734-7070 | 팩스 | 02)734-8770  
 ksmseoul@ksm.or.kr www.ksm.or.kr | 디자인 및 인쇄 | 인디디자인

【교문】 강문규,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영 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고희선, 김병준, 김세영, 김영수, 김정근, 박남수, 박원철, 박준영, 손진우, 윤정현, 이수구, 이용선, 전정희, 정 여, 정의화, 천정배, 최대석 【감사】 김영환, 전 성 【사무총장】 강영식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청년의 열정과 전문가의 안목을 느끼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신임공동대표 두 분을 만났습니다.

이영재 기획홍보팀 간사



피해유가족 포유단

3월의 끝 자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매서운 바람 가운데 〈우리민족서로 돕기 운동〉의 활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신

신임공동대표 김병준, 손진우 두 분을 만났다.

김병준 대표님은 경기도 성남의 남한산성역 부근의 소망재활원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의사라는 직업에 외에 양친사회복지회의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환자,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다. 우리가 찾아간 대표님의 방에는 500여명에 달하는 복지법인 직원들의 사진과 이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이는 지나가면서라도 고생하는 직원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하기 위해서라고 하신다. 따뜻하고 섬세한 면이 시작하기 전부터 전해져 오는 느낌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의 인연으로부터 시작해 현재 대표직까지 수락하게 된 배경을 여쭙보는 것으로 본격

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대표님과 우리 단체와의 인연은 시간을 한참 거슬러 98년부터였다. 한 모임에서 우연히 우리 단체의 실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시작으로 복지법인 직원들에게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강의를 우리 단체에 요청하기도 하셨단다. 그 인연으로 보건의료파트의 집행위원도 맡아서 전문가 조언도 해주시고 방북 등 활발한 활동을 하셨음은 물론이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함경도 출신 실향민이라는 대표님은 통일이 될 때 실향민 2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남한에서 북한을 돕는 민간단체 활동에 “나 같은 사람이 안하고 고개 돌리면 도대체 누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우리 단체의 대표직을 수락한 거라고... 또 단체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꿈 또한 부모님 고향인 함경도에 병원이나 장애인, 노인복지 시설 등을 세우는 거라고 하셨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거듭 강조하신다. 가까운 예로 의사협회는 향후 북한에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고, 사회복지단체들은 북한의 고령인구, 장애인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즉 민간은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은 정권차원의 논리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전쟁 시에 적군의

부상도 치료해야만 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일터인데, 북한과 대치하고 있더라도 그 나라에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면 식량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최소한 지원하는 민간을 막아서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셨다. 대표님과 길지 않은 시간을 대화하면서 대표님의 의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감 및 무거운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또 한 분의 젊은 피(?) 손진우 대표님을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정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1935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대표님은 현재 78세의 연세로 북한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공부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씩스러운 듯 “허허” 웃으셨지만, 그 속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만학도의 열정이 배어 있었다.

어떻게 늦은 나이에 특히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조심스레 여쭙 보았다. 대표님은 젊은 시절부터 74세까지 플라스틱 업종에 종사하셨다고 한다. 거친 손에서 그 치열했던 이력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74세 이전은 가족들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면 그 이후의 인생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값진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셨다고... 그것은 바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염원했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여였다. 이를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신 대표님은 여러 학교에 입학의 시도 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뜻밖에 지인의 소개로 북한대학원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고위급 과정인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이를 계기로 대학원 북한학 석사과정에 정식으로 입학을 하게 되셨고, 현재까지 배움의 재미와 흥분을 만끽하고 계신다. 대화 내내 그 설렘과 행복감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의 인연과 앞으로 새내기 대표로서 각오를 한 말씀 청했다. 하루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자 우리 단체 상임공동대표인 최원규 대표님께서 손 대표님께 우리 단체에서 함께 활동해보자고 제안을 하셨다고 한다. 지식을 채워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앎과 행동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 또한 값진 길이라고 생각하신 대표님께서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셨다고. 앞으로 우리 단체

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활동가가 되어야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혀 오셨다. 대표님 본인은 6.25 참전세대이고 그간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많이 안고 살아왔지만



손진우 신임공동대표

더 이상은 남북관계가 나빠져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나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제는 남북이 화합을 해서 통일로 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이 민족의 숙명이자 개인적으로 직접 목격하고 싶은 장면이라는 말씀을 듣자, 활기찬 대화 가운데 약간의 숙연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대표님은 비슷한 연령의 어르신들과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겨하신다고 한다. 대표님과 같이 참전세대들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이슈화 되면서 이념적으로 대치하게끔 만드는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로부터 많은 세월을 보내온 어른들이 먼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분의 신임대표와의 짧지만 강렬한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님들의 열정과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해 두 분 모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시는 모습에서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시길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의 사업도 무한한 열정으로 한발 한발 우직하게 대딜길 기대해본다.

# 새길교회 방문기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쌓아 올리는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교회로

이번 호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후원해 주신 새길교회 신자 여러분을 만나고 온 방문기를 실었습니다. 신자들 모두가 주인인 새길교회에서 열린 교회, 섬기는 교회를 지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효정 홍보편집위원장

일요일 아침 일찍 청담동에 있는 <강남청소년 수련원>을 찾았다. 강남 한 복판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게 한적한 숲 속에 아담하게 자리한 <강남청소년 수련원>이 새길교회의 보금자리이다. 새길교회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마다 청소년 수련원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방문 전 사전 정보 검색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교회와는 다른 형태라 새길교회의 이모저모를 엿보고 싶어졌다.

윤여성 운영위원장께 새길교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새길교회는 (사)새길기독교사회문화원과 새길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급속한 양적 팽창, 이와 함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기독교의 쇠신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신학 강좌와 도서 발간 등 영성을 견고히 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운동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길교회는 작년 성탄절에 모은 교인들의 성금을 이

일영 상임공동대표의 소개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보내 왔고, 이는 함경북도 어린이 돕기에 소중하게 쓰여졌다. 새길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원 대상자와 전달 방법 등을 공정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복민협 회장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북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윤여성 운영위원장은 후원 과정을 설명했다.

작년 온성군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 현장에 방문한 노은기 선교부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길교회는 교회 설립의 정신에 따라 오래 전부터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왕진 가방>으로 유명한 샘(SAM) 복지재단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팩>을 전달해 왔고, 연변과 평양에 영양팩 공장을 설립했는데 지금 평양은 폐쇄되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BaB 캠페인에 후원한 인연으로 공동 대표들과 연변의 빵 공장을 방문하고 물자가 전달되는 과정을 지켜 보았지만,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어 중국 동포를 대신 보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번이 해외 후원 현장 첫 방문이라는 질문에 노은기 선교부장은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한다. “해외 선교와 봉사를 다녀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나눔이 부족하고 또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은기 선교부장은 도회지에서 편하게 목회하며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시골 농부로 살면서 새길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을 보니 더 낮은 곳으로, 소외된 이웃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겸손하며 인간미 넘치는 그의 삶이 감동으로 전해져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교회 십자가 하나 없는 수련원 강당에서 소박하게 드러지는 예배였지만, 180여 명의 신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한 마음으로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반목과 대립으로 편가르는 사람들의 일치를 호소하며, 복지 시설에 보낼 의류를 모으고 있었다.



교회 재정의 60%는 선교와 봉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티와 일본 대지진 때는 긴급 구호 성금을 보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이 40~50군데가 된다는 이선근 교육전도사의 말을 들으니, 새길교회가 참 특별하게 느껴지고 신자들이 대단하게 여겨진다.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고 가라고 붙잡는 신자들이 너무 고마워 뿌리치지 못하고, 슬그머니 앉아서 맛있는 점심까지 얻어 먹었다. 새로운 얼굴을 보고 반가워 하며 인사를 건네는 교인들의 모습은 평화로움과 행복감이 넘쳐났다. 인터뷰 기사에 필요한 사진 한 장 찍자고 해도 얼굴 드러내는 것 부끄럽다며 사진 찍기도 마다하는 겸손한 분들이라, 예배 보는 신자들의 뒷모습만 사진에 담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새길교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동포와 인류를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다. 수련원 뒷동산의 마른 나뭇가지에 작은 움이 큰 소리를 내며 터져 나온다. “야! 봄이다. 깨어 일어나자.”

“해외 선교와 봉사를 다녀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나눔이 부족하고 또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 노은기 선교부장



# 남한의 '가장' 과 북한의 '세대주'

김병욱 새터민

## 남북한 문화 엿보기

북한의 세대주와 남한의 가장이라는 의미에는 가족 내에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능력과 가정의 대표성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서 세대주는 후자 쪽에, 남한에서의 가장은 전자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세대와 남한에서의 가구의 역할 차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가정의 의미와 남한의 가족 의미에서 비롯된다.

북한에서는 가족의 가장을 세대주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새터민 여성들도 '우리 세대주' 라는 표현에 익숙해 있다. 그렇다 보니 타인과의 대화에서 '우리 세대주' 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그때마다 상대방의 의아한 눈빛을 경험하곤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가장을 왜 세대주라고 할까? 북한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대주다. 대체로 남편이 세대주이지만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를 대신하여 공장, 기업소(회사)에 취직해야 하는 아내 혹은 성인인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세대주는 직장에서 본인은 물론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할 나이가 되지 않은 자녀 혹은 퇴직한 부양가족에 대한 배급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세대주와 대응되는 사람을 '가장' 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우리 가장' 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우리 신랑' 혹은 '애 아빠' 라는 표현을 쓴다. 남한에는 북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년, 소녀 가장도 있다. 남한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데 반해 북한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친척집에 맡기거나 고아원에 보내 아이들만의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

북한의 세대주와 남한의 가장이라는 의미 속에는 가족 내에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능력과 밖으로는 가정의 대표성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서 세대주는 후자 쪽에, 남한에서의 가장은 전자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세대와 남한에서의 가구의 역할 차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가정의 의미와 남한의 가족의 의미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국가가 사적 소유를 억제한 속에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어 가족이 독립적 경제생활 단위로 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남한은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가구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생활 단위로 된다. 북한의 세대주나 남한의 가장은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식량배급제나 상품공급제는 명절날이나 그리고 평양시에서나 가동하고 있다. 배급제의 관성이 남아있고 세대주에 대한 조직적 통제가 강해 세대주의 능력이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남한에서 가장은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가족의 장(長)이다. 가장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족의 삶이 결정된다. 북한에서는 세대주의 무능력이 부부간의 이혼의 사유로 되지 못하지만, 남한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가장이라 하면 왠지 피곤한 느낌, 북한의 세대주라 하면 몸에 힘을 주게 되는 느낌이 든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세대주의 밥그릇은 제일 좋은 것을 골라 담아주는 것이 도덕이라고 생각한 것이 북한여성들이다.



세대주의 경제적 능력을 보장해주던 국가배급이 중단된 지 이제는 20년이 되어온다. 북한에서 세대주인 남편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면서 아내로부터 "불편이", "집지키는 멍멍이", "낮 전등"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가족 내의 문제이고 세대주는 여전히 가족의 대표자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어 세대주로의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새터민 남성들 속에서는 남한에 와서도 가장이 아닌 세대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연장자로 입국한 새터민 남성들 속에서는 아내에게 본인 아니게 "세대주한테 무슨 본때냐"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가족동반으로 입국한 새터민 남성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아내가 남한에 와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새터민 남성들이 세대주가 아닌 가장임을 인식하는 속에 새터민 가정의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김병욱님은 2004년 한국에 온 새터민으로 77호부터 새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

#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헌 교과서 수거에 동참합니다!



서울시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이 함께 진행하는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이 올해 2월 초등학교 수거를 마지막으로 1차년도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귀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1차년도 수거량을 취합해보니 각 학교별로 평균 1.32톤 가량의 종이자원이 수거됐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 학기 의미없이 버려지는 종이자원들을 통해 어려운 동포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업 취지에 함께 공감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도 올해부터 본 수거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2월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거행된 협약식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영담 상임공동대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 경기교총 정영규 회장, 경기교육지원봉사단체협의회 최정숙 상임대표 외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경기도 지역 초, 중, 고교 학생들도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돕는데 정성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2011학년도 서울시 헌 교과서 수거사업 실적

수거 기간	대상	참여 학교 수	평균 수거량(kg)	총 수거량(kg)
11년 7월	초등학교	358개교	963	344,830
11년 11월	고등학교	72개교	1,450	104,390
11년 12월	중 학교	161개교(고교 3개 포함)	1,380	222,160
12년 2월	초등학교	316개교(중·고교 8개 포함)	1,668	526,978
합 계				1,198,358

경기도 헌 교과서 수거 역시 하계 방학식을 전후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고, 본 수거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5월 수원시 초, 중, 고교만을 대상으로 시범 수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진행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헌 교과서 수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북녘 어린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세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이 희망이다'를 통해 모금된 후원자 분들의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으로 전달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북한아이들

봄은 왔으나 아직 겨울을 닳은 바람이 매섭습니다.

북녘 아이들의 체감온도는 어떨까요?

매일 영하의 기온이 배고픈 아이들의 몸에 온전히 스며들며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봄은 여전히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야 할 겨울과 같은 계절일지 모릅니다.

특히 지난 1월,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가 북한 동부지역 4개도(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량강도)의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함경남도 5세 미만 어린이 중 87%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함경북도와 강원도는 86%, 량강도는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녘 어린이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이 희망이다'를 통해 모금된 후원자 분들의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으로 전달됩니다.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이 희망이다'에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 분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눔과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추진되어야

### - 4.11 총선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손종도 평화나눔센터/정책팀 부장

최근 끝난 4.11 총선에 나선 6개 정당 후보자들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총선 후보들의 이러한 의견은 남북관계 등 정치 상황과 인도적 대북 지원이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상당수 후보자들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국민생각당, 진보신당 등 6개 정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질의 결과 나온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올해 북민협의 회장 단체로 이번 정책 질의의 제반 실무를 담당했다.

이번 4.11 총선에 나선 6개 정당 572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책 질의는 현재의 남북경색을 넘어 인도적 대북지원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총 246명으로 응답률은 43%를 기록했다.

#### ○ 전체 질의 대상 후보자 및 응답률

구분	후보자수(명)	비율(%)
정책질의서 발송 후보 (6개정당)	572명	-
응답 후보자	246명	43.0%

#### ○ 주요 정당별 후보자수 및 정책질의 응답자수

정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국민생각	진보신당	총 계
후보자	230명	210명	50명	54명	20명	23명	587명
응답자	49명	132명	10명	33명	4명	18명	246명
응답률	21.3%	62.9%	20.0%	61.1%	20.0%	78.3%	-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되어야**

응답한 후보들 중 213명(87%)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치·군사적 상황의 분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 상황 등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민간 차원의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답한 후보들은 33명(13%)에 그쳤다. 후보들의 이러한 답변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과는 별개로 민간 단위의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질문 5)** 귀 후보는 정부 지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체응답자(명)	전체비율(%)	3개정당 비율(%) (새누리, 자유선진, 국민생각)	3개정당 비율(%) (민주통합, 통합진보, 진보신당)
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 상황 등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13	87	48	100
나.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민간차원의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33	13	52	0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3개 정당의 후보들은 100%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 상황 등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국민생각당 등 3개 정당의 후보들(총 응답자 63명)은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민간 차원의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에 52%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 상황 등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에 48%가 답변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3개 정당 후보들의 반수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 상황 등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꽤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 상황과 인도적 대북 지원이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상당수 후보들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해야**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지원 물품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214명)는 '정부가 규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민간 모금일 지라도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후보들은 32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사실 민간단체들은 현 정부 들어 정부의 기금이 아닌 자체 모금으로 마련한 물자에 대해서도 정부 규제로 제대로 지원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3개 정당의 후보들 중 반수 이상이 '정부가 규제할 일이 아니다'고 응답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6)**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지원 물품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항	전체응답자(명)	전체비율(%)	3개정당 비율(%) (새누리, 자유선진, 국민생각)	3개정당 비율(%) (민주통합, 통합진보, 진보신당)
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 품목을 제외하고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규제할 일이 아니다.	214	87	51	99
나. 민간 모금일지라도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	32	13	49	1

**민간단체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높아**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러한 답변은 적어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민간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과는 별개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보수 정당에서도 적어도 반수 이상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민협으로 대표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들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총선 입후보자들은 '민간단체 대북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주관식 질문에 '민간단체 대북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응답한 후보들이 60명(25%)에 이르렀다. 후보들은 또 '인도적 대북지원의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 마련'에도 44명(18%)이 응답, 대북 지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질문 10)** 인도적 대북지원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복수답변 가능)

문항	전체응답자(명)	전체비율(%)	3개정당 비율(%) (새누리, 자유선진, 국민생각)	3개정당 비율(%) (민주통합, 통합진보, 진보신당)
가.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해소	182	74	62	78
나. 남북의 교류협력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통일을 촉진	179	73	48	81
다. 남북관계 개선을 이룸으로써,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	205	83	59	92
라. 북한 정권의 배불리기에 악용	9	4	11	1

한편 인도적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룸으로써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라고 답한 후보자들이 205명으로 83%에 달했다. 복수답변이 가능한 이 질문에 182명(74%)의 응답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 179명(73%)은 '남북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통일을 촉진'이라는 답변을 선택했다. 반면 '북한 정권의 배불리기에 악용' 된다는 답변을 선택한 후보자는 9명에 그쳤다. 더불어 이 답변을 선택한 보수 3당의 응답 비율도 11%에 불과했다.

후보자들의 이러한 답변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더해 남북관계의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민간단체들의 일관된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북민협은 이러한 정책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개원하는 19대 국회의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질의의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응답자 명단 등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www.ksm.or.kr)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 식수 및 위생환경 실태

#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환경, 건강한 삶의 바탕입니다

기획홍보팀



몸의 70%가 물로 이뤄져 있는 인간은 1%의 탈수만 와도 갈증을 느끼고, 10%의 수분 손실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렇듯 물은 인간 생활에 있어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물 공급과 위생적 환경에 익숙한 남한 국민들은 물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식수/위생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공동으로 '2012 식수/위생 분야 보고서 (Progress o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2012)'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덟 개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중 식수와 위생 분야에서 각국의 상황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밝히는 조사 보고서로 2년에 한 번씩 발간됩니다.

올 해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수 분야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한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 주민 100%가 상수도, 공공 배수탑, 위생적인 우물 등 안전한 식수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올 해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98%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도시에 비해 농촌의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위생 분야에서는 하수도, 정화조, 수세식 변기, 환기장치와 뚜껑 있는 재래식

변기를 사용하는 인구가 2000년 61%였던 것이 2010년에는 80%로 대폭 증가하면서, 북한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른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식수/위생 환경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잦은 가뭄과 벌목,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식수원의 고갈과 오염,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한 식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수인성(水因性) 질환이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내외의 많은 단체들이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독일 NGO인 저먼에그로액션(German Agro Action, Welthungerhilfe)의 경우, 2002년부터 평안북도 구장군(인구 5만 명), 강원도 안변군(인구 4만 명)의 250여개 사회시설(병원, 유아원 등)에 오수정화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이 지역의 수인성 질환 발병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한의 기아대책기구도 2004년, 평양 적십자병원과 황해북도 봉산군 젓염소 목장의 지하수 개발사업을 펼치는 등 식수/위생 개선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정색으로 대부분의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식수/위생사업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환경은 건강한 삶의 바탕입니다. 하루 빨리 지원사업이 정상화되어 북한 주민들이 맘껏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 행복을 먹고 자란 두 달

두 달 동안  
이 만큼이나  
자랐어요!

임지은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4학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두 달. 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한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구상되어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값진 것 같다. 이곳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초등학교 현 교과서 수거 작업 진행을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일뿐만 아니라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사무처 정책회의에 들어가 함께 토론하는 등 그 밖에 다양한 배움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있으면서 알게 된 남북관계는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권과 정치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내 짧은 생각으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정착은 남한의 관점과 입장으로 북한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서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두 달 동안 지내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자신하는 부분은 정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사실 처음에 나는 '어차피 난 두 달만 일하다가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마음의 선을 긋고 지냈다. 그래서 초기에 사무실 식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꽤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행사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내가 여기 참석해도 되냐' 하며 내심 불편해 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무실 식구들은 모두가 나를 두 달만 일하다 갈 사람이 아닌 계속해서 인연을 맺어갈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셨다. 나도 모르게 이곳에 정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 긋고 있던 마음의 선을 지워버리고 적극적으로 사무처의 한 식구가 되려고 노력했다. 발렌타인데이에 사무실 식구들에게 쿠키선물과 편지를 준비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기뻐해주셔서 덩달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의 두 달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관심과 정을 듬뿍 받았던 시기 같다. 몸도 마음도 쭉쭉 클 수 있는. 그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잊을 수 없는 값진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



#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1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3일** 신년사설 분석토론회 (인권위)
- 11일** 동학민족통일회 성금 전달
- 16일**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급식 지원
- 18일** 대북지원 국제회의 평가회의 (사무실)
- 26일** 77호 소식지 발행
- 30일** 영유아지원단체 간담회 (통일부)

## 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일** 북민협 정기총회-회장단체 선임 (프레지던트 호텔)
- 미대사관 초청 고등학생 자원활동 (회의실)
- 7일**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급식 지원
- 8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프레스센터)
- 10~16일** 초등학교 현 교과서 수거 (서울시 초등학교 308개 참여)
- 17일** 보건의료 지원 단체-통일부 간담회(통일부)
- 21일** 2011 사업보고서 발행
- 22일** 제69차 공동대표 회의 (가든호텔)
- 경기도 현 교과서 수거사업 협약식 (경기도교육청)
- 28일** 2011학년도 서울시 현 교과서 수거사업 결과보고 (서울시교육청)

##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0일** 2012년 제1차 대북지원 민간정책협의회 전체회의 (달개비)
- 22일** UN 대표단 간담회 (외교통상부)
- 22~23일** 급식지원 관련 중국 출장
- 27일~4월 4일** 북민협, 19대 총선 후보자 정책질의

## 4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6일**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
- 7일** 북민협, 정책질의 결과 보도자료 배포
- 17일**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국방부 앞)
- 20일** 경기도 수거업체 협약식 (회의실)
- 23~5월 10일** 서울시 수거 참여학교 방문 조사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2012년 1월, 2월, 3월 성금 및 회비를 기탁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대한 북녘동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 후원자명단이 누락되었거나 이상이 있을시 연락바랍니다.

<b>12월</b>	권오규 30,000 (주)대용파마텍 20,000 (주)디에이블커머스 100,000 (주)리치스톤 5,000 (주)상성파워일렉트릭 20,000 (주)세진산업개발 100,000 (주)신도데이터통신 10,000 (주)여행이아기 10,000 (주)지담종합건축사 20,000 (주)참이엔지 30,000 (주)클린피에스엠 40,000 김복조 5,000 강경중 20,000 강남준 10,000 강동원 20,000 강선미 5,000 강성부 10,000 강성구 10,000 강승원 20,000 강승희 10,000 강 신 10,000 강원호 20,000 강인범 10,000 강정미 5,000 강정음 10,000 강지영 50,000 강창구 10,000 강채원 10,000 강필희 5,000 강필희 10,000 강해경 10,000 강혜영 10,000 경진TEAM 20,000 고관석 20,000 고기철 10,000 고봉준 10,000 고석우 10,000 고세광 10,000 고수석 10,000 고승일 20,000 고재철 20,000 고정수 20,000 고정환 10,000 고진광 10,000 고창훈 30,000 고찬실 5,540 고희갑 10,000 공은영 10,000 곽연실 10,000 곽재원 10,000 곽 현 10,000 구국모 10,000 구수영 10,000 구영주 10,000 구은경 10,000 구정희 20,000 구종모 10,000 국민호 20,000 권병오 10,000 권보희 10,000 권숙희 5,000 권승언 10,000 권영노 10,000	권오근 10,000 권오근 20,000 권오훈 10,000 권현진 10,000 금강산닷컴(주) 10,000 금휘식 30,000 김기관 10,000 김창배 10,000 김갑수 10,000 김갑식 30,000 김강민 30,000 김경재 10,000 김경태 10,000 김경화 5,000 김계순 5,000 김관식 20,000 김광식 10,000 김광아 20,000 김광열 10,000 김광진 10,000 김구철 10,000 김구현 10,000 김금순 이호준 40,000 김금평 25,000 김기원 10,000 김기은 50,000 김길자 20,000 김길철 5,000 김나홍 5,000 김 당 10,000 김대영 5,000 김대영 5,000 김대영 5,000 김대중 5,000 김덕수 10,000 김도규 20,000 김동광 10,000 김동규 10,000 김동근 20,000 김동분 500,000 김동진 10,000 김동환 30,000 김민수 20,000 김민진 5,000 김민태 5,000 김명기 10,000 김명수 30,000 김명연 10,000 김미홍 10,000 김민곤 10,000 김민석 5,000 김민제 10,000 김병규 10,000 김병구 5,000 김병규 10,000 김병균 10,000 김병수 10,000 김병준 100,000 김보연 5,000 김삼수 5,000 김상근 20,000 김상득 20,000 김상범 30,000 김상수 10,000 김상식 10,000 김성운 5,000 김석진 10,000 김석창 10,000 김선영 5,000 김선미 5,000	김선배 10,000 김선창 50,000 김설자 10,000 김성봉 40,000 김성수 5,000 김성수 10,000 김성우 10,000 김성재 20,000 김성재 100,000 김성철 10,000 김성희 5,000 김소영 10,000 김소영 10,000 김소영 10,000 김수암 10,000 김순옥 20,000 김계순 10,000 김양수 10,000 김영오 20,000 김영수 10,000 김영수 10,000 김영주 10,000 김영주 10,000 김영주 10,000 김영호 5,000 김영환 500,000 김옥영 10,000 김완배 20,000 김완배 100,000 김용덕 30,000 김용현 10,000 김원희 5,000 김우연 20,000 김우전 10,000 김원근 10,000 김원근 10,000 김원경 10,000 김은경 3,000 김은경 5,000 김은숙 20,000 김은혜 10,000 김은희 10,000 김옥상 10,000 김익근 10,000 김인선 10,000 김일선 100,000 김일환 10,000 김장연 10,000 김장훈 10,000 김재광 5,000 김재욱 20,000 김재혁 10,000 김 정 10,000 김정미 10,000 김장수 10,000 김정희 10,000 김종갑 20,000 김종구 10,000 김중문 20,000 김중문 10,000 김중순 10,000 김중현 20,000 김중혁 10,000 김주영 50,000 김주태 5,000 김주학 10,000 김주희 100,000 김준석 20,000 김준영 10,000 김준현 10,000 김준수 10,000 김준호 30,000	김지선 20,000 김지수 10,000 김진백 10,000 김진현 10,000 김진현 9,000 김창근 10,000 김창순 10,000 김창연 10,000 김태수 20,000 김태중 10,000 김학성 10,000 김학성 10,000 김학신 10,000 김학진 10,000 김한울 80,000 김해중 5,000 김재성 10,000 김현우 30,000 김현우 10,000 김홍일 20,000 김홍진 10,000 김홍진 10,000 김홍일 10,000 김희근 20,000 김희배 10,000 나선길 100,000 나원연 30,000 나원연 20,000 나은우 20,000 나창용 20,000 남상돈 10,000 남세현 5,000 남정현 10,000 노관숙 5,000 노금호 10,000 노인선 20,000 노정환 20,000 노재승 10,000 노준봉 5,000 노형래 10,000 노호근 20,000 다물출판 100,000 도재영 10,000 류용성 5,000 류이근 10,000 류주현 5,000 류현선 10,000 류희자 20,000 마경화 20,000 목주승 5,000 문경성 5,000 문미영 5,000 문성권 10,000 문수정 20,000 문용식 10,000 문주연 10,000 민경기 20,000 민소옥 10,000 민향식 10,000 민현주 10,000 박 건 10,000 박경관 10,000 박경호 5,000 박기호 20,000 박남용 50,000 박덕환 10,000 박동우 5,000 박동호 50,000 박명기 30,000 박우영 10,000	박문식 30,000 박미란 10,000 박미화 10,000 박병우 10,000 박병섭 30,000 박병우 10,000 박복영 10,000 박상욱 50,000 박상일 20,000 박석양 10,000 박선숙 5,000 박선우 30,000 박성기 20,000 박성은 30,000 박성준 10,000 박성찬 10,000 박소희 10,000 박 손 10,000 박순성 10,000 박애스더 50,000 박영근 20,000 박영철 10,000 박용권 20,000 박원규 10,000 박은하 5,000 박의용 10,000 박이현 20,000 박인숙 60,000 박인순 10,000 박재욱 10,000 박정근 50,000 박정만 10,000 박정숙 10,000 박정자 10,000 박종록 10,000 박종윤 20,000 박주현 5,000 박지연 20,000 박지용 15,000 박지훈 30,000 박현철 10,000 박형근 10,000 박형중 30,000 박혜영 50,000 박희순 10,000 박희운 10,000 반차범 10,000 밝은세상 45,000 방양수 10,000 방재만 5,000 방준일 10,000 배대환 10,000 배덕호 10,000 배소영 20,000 배수현 10,000 배향란 20,000 백낙서 10,000 백선우 20,000 봉미란 10,000 사랑의채널 100,000 사기원 30,000 서동화 20,000 서명호 10,000 서연우 10,000 서옥주 20,000 서정숙 10,000 서희정 10,000 석찬희 10,000 선영숙 10,000 성낙준 5,000	성영찬 10,000 손경민 10,000 손경환 10,000 손광우 20,000 손덕현 20,000 손승호 20,000 손영주 10,000 손진책 10,000 손경민 20,000 송두현 30,000 송상용 10,000 송상훈 10,000 송은학 20,000 송은지 10,000 송재천 10,000 송재천 10,000 송정배 10,000 박 손 10,000 송지섭 10,000 신기호 10,000 신동식 10,000 신동철 20,000 신동해 5,000 신수익 10,000 신순이 5,000 신영교회 150,000 신용철 10,000 신영식 10,000 신종석 10,000 신진현 10,000 신홍수 20,000 신홍교회아동 34,600	심경란 50,000 심말선 10,000 심하림 10,000 심주현 10,000 심현희 10,000 안동희 10,000 안영화 20,000 안상화 5,000 안세봉 20,000 안승열 100,000 안승자 10,000 안영숙 5,000 안예상 10,000 안정덕 5,000 안정식 10,000 안정훈 5,000 안종근 5,000 안종출 5,000 안준상 40,000 양관승 20,000 양근성 10,000 양민수 10,000 양미아 20,000 양미화 5,000 양순환 10,000 양우성 10,000 양윤정 2,000 양원보 20,000 양재복 100,000 양재복 10,000 양재용 10,000 양진선 5,000 양해준 10,000 양희석 10,000 어용철 5,000 엄기철 10,000 엄영수 20,000 엄주일 20,000	염규현 10,000 염동현 10,000 염 철 50,000 영농조합법인부광축산 50,000 오계환 10,000 오만순 30,000 오문석 50,000 오선연 5,000 오세호 10,000 오소영 30,000 오수형 10,000 오준희 10,000 오형석 20,000 오해근 5,000 오화선 10,000 왕정찬 5,000 우성호 10,000 우종호 10,000 원동우 10,000 원세상(사주) 30,000 원종남 10,000 원호진 10,000 유광열 30,000 유근호 30,000 유남길 20,000 유명희 5,000 유새벽, 유새날 20,000 유성식 10,000 유승주 5,000 유시민 10,000 유원희 10,000 유윤숙 5,000 유은향 10,000 유인숙 20,000 유종석 10,000 유지수 8,500 유진상 10,000 유페이스시스템(주) 30,000 윤광운 5,000 윤도희 5,000 윤두희 10,000 윤미화 10,000 윤방일 30,000 윤병현 10,000 윤서영 5,000 윤석운 10,000 윤성진 10,000 윤승출 50,000 윤시원 10,000 윤영복 5,000 윤용근 10,000 윤재희 10,000 윤종식 10,000 윤종현 10,000 윤창빈 5,000 윤창섭 10,000 이강기 50,000 이강희 5,000 이경미 5,000 이경재 10,000 이경희 10,000 이국립 5,000 이규봉 10,000 이규설 5,000 이근덕 30,000 이근태 10,000 이근행 10,000
------------	---	--	---	---	--	---	--	---



후원자 명단

송태규 10,000	유은향 10,000	이용균 10,000	장재영 10,000	조 윤 5,000	현윤실 10,000	김진관 20,000	이찬권 10,000	김영진 10,000	박종근 10,000	이정훈 10,000	(주)삼성파워일렉트릭 20,000	김광아 20,000	김은경 10,000
신규호 10,000	유인숙 20,000	이용암 10,000	장준용 10,000	조윤근 10,000	현윤애 10,000	김진태 10,000	이춘심 10,000	김민재 30,000	박종원 20,000	이재현 10,000	김광열 10,000	김은경 3,000	김은경 3,000
신기호 10,000	유종석 10,000	이우영 20,000	장형수 30,000	조승원 30,000	현종윤 40,000	김창희 10,000	이한택 10,000	김민희 10,000	박진우 20,000	이종식 10,000	김광진 10,000	김은숙 5,000	김은숙 5,000
신동석 10,000	유지수 8,500	이윤학 10,000	장환빈 10,000	조재호 10,000	호영진 15,000	김태환 5,000	이현숙 10,000	김부도 20,000	박표균 10,000	이종학 10,000	100,000	김구철 10,000	김은숙 20,000
신동창 20,000	유진상 10,000	이원민 5,000	전극재 10,000	조성순 10,000	홍규표 30,000	김혁세 10,000	익신호요양병원 10,000	김부민 50,000	박형준 20,000	이지영 30,000	(주)신도메이타통신 10,000	김구현 10,000	김은혜 10,000
신동애 5,000	유피에스시스템(주) 30,000	이원욱 5,000	전달수 10,000	조준혁 10,000	홍기호 10,000	김성수 20,000	임영수 10,000	김상현 10,000	박홍숙 30,000	이지은 10,000	10,000	김근우 30,000	김은혜 10,000
신수익 10,000	윤광문 5,000	이윤상 5,000	전미란 5,000	조창식 10,000	홍기호 10,000	김호식 10,000	임재필 10,000	김선숙 30,000	박홍순 10,000	이재경 20,000	(주)여행이아기 25,000	김근순 이호준 40,000	김은상 10,000
신승민 5,000	윤도희 5,000	이은경 10,000	전병은 10,000	조태현 5,000	홍관희 5,000	류희웅 10,000	임재필 5,000	김선희 20,000	방성환 10,000	이학수 20,000	10,000	김경민 25,000	김익민 10,000
신승철 10,000	윤두형 10,000	이은희 10,000	전병태 10,000	조한민 10,000	홍관희 최은서 5,000	문용식 5,000	전기철 5,000	김선희 5,000	백정은 10,000	이현우 500,000	(주)지담종합건축사 20,000	김기원 10,000	김민선 10,000
신정식 10,000	윤미하 10,000	이용세 10,000	전성관 10,000	조한범 10,000	홍연기 10,000	문태환 5,000	전병희 10,000	김성건 20,000	변은경 10,000	이현재 10,000	20,000	김기은 50,000	김일성 100,000
신준석 10,000	윤방원 30,000	이인덕 10,000	전애숙 10,000	조해기 5,000	홍미옥 30,000	박규순 10,000	전병희 10,000	김성수 20,000	사랑의재단 10,000,000	이현우 10,000	(주)창이앤지 30,000	김기만 10,000	김일환 10,000
신진현 10,000	윤병영 10,000	이인수 10,000	전영미 20,000	조 현 5,000	홍상은 5,000	박만승 10,000	정광래 5,000	김승진 20,000	10,000,000	김기운 10,000		김갑자 20,000	김장연 10,000
신진호 20,000	윤병현 10,000	이일선 10,000	전영일 20,000	조현영 10,000	홍성건 10,000	박미숙 10,000	정광수 5,000	김양숙 20,000	상록촌수녀원 20,000	김민희 10,000	(주)클린피에스엠 40,000	김길철 5,000	김장환 10,000
신홍수 20,000	윤서영 5,000	이일영 10,000	전영일 10,000	조현호 20,000	홍숙희 20,000	박성일 20,000	정기운 10,000	김연옥 50,000	상록촌수녀원 20,000	김민희 5,000	40,000	김나홍 5,000	김재욱 5,000
심경란 50,000	윤석원 100,000	이재학 50,000	전영운 10,000	조형준 20,000	홍재표 10,000	박연규 10,000	정병현 30,000	김영득 10,000	서혜란 10,000	김지훈 20,000	김복조 10,000	김나영 10,000	김재욱 20,000
심말선 10,000	윤석운 10,000	이재희 5,000	전일수 10,000	주권수 10,000	홍준석 10,000	박용수 5,000	정수범 10,000	김영재 10,000	석동수 1,000,000	김대영 2,000,000	김경중 20,000	김대영 5,000	김재혁 10,000
심하림 10,000	윤성진 10,000	이정세 10,000	전정수 10,000	주달남 244,800	황계근 (주)달남 100,000	박용선 10,000	정아름 5,000	김용민 5,000	신정아 30,000	김범식 10,000	김경현 10,000	김대영 5,000	김기 정 10,000
심현주 10,000	윤승림 50,000	이장수 10,000	전정희 5,000	주루미 5,000	황대철 10,000	박윤환 10,000	정종원 10,000	김용재 10,000	설인혜 30,000	장준호 10,000	김남준 10,000	김대중 5,000	김정미 10,000
심희희 10,000	윤서원 10,000	이정숙 10,000	전중수 20,000	주우미 5,000	황영필 10,000	박인근 10,000	정해별 5,000	김용화 5,000	성현주 30,000	김병권 10,000	김동완 20,000	김도규 20,000	김정수 10,000
안동희 10,000	윤영복 5,000	이정식 50,000	전채남 10,000	주재열 10,000	황성주 30,000	박재호 10,000	정홍기 10,000	김우총 20,000	손주현 50,000	김신미 5,000	김동광 10,000	김성광 10,000	김정순 10,000
안영화 20,000	윤용근 10,000	이정영 10,000	전향미 10,000	주현기 10,000	황재성 10,000	박종호 20,000	조성택 20,000	김민우 15,000	송명옥 20,000	김동혁 10,000	김동훈 20,000	김성부 10,000	김정희 10,000
안상화 5,000	윤재희 10,000	이정주 10,000	전혜린 20,000	주희옥 5,000	황중철 10,000	박종호 10,000	조승훈 5,000	김이항 10,000	송용석 10,000	김미혜 10,000	김동빈 500,000	김동배 20,000	김정화 20,000
안세봉 20,000	윤종식 10,000	이정희 5,000	전 훈 5,000	지선경 5,000	황창규 10,000	박종환 5,000	조용권 50,000	김민선 10,000	송준섭 10,000	김성경 20,000	김동진 10,000	김성우 10,000	김종구 10,000
안영숙 5,000	윤종현 10,000	이종근 20,000	정경옥 3,000	지준호 10,000	김창원 10,000	박태신 10,000	조우영 10,000	김자현 10,000	송형욱 10,000	김성희 5,000	김동진 10,000	김성희 10,000	김종문 20,000
안정덕 5,000	윤창빈 5,000	이종영 10,000	정경훈 10,000	진상호 10,000	황영열 10,000	박용열 10,000	조주원 5,000	김장권 10,000	신대현 5,000	김성준 10,000	김동환 30,000	김 신 10,000	김종순 10,000
안정식 10,000	윤창섭 10,000	이종민 10,000	정계현 10,000	차현애 10,000	강대균 10,000	배선규 10,000	조지현 5,000	김정미 10,000	신삼복 10,000	김영호 20,000	김만진 5,000	김영호 20,000	김종현 20,000
안정훈 5,000	윤평근 10,000	이종석 30,000	정 근 10,000	차형철 20,000	강준권 30,000	서민원 5,000	주승순 5,000	김정현 10,000	심은실 10,000	김익범 10,000	김민태 5,000	김주영 50,000	김종현 20,000
안종규 5,000	이강기 50,000	이종안 20,000	정근식 10,000	채병철 10,000	공용택 30,000	김원섭 10,000	주원섭 5,000	김정은 20,000	심재원 10,000	김정철 10,000	김민철 10,000	김주혁 10,000	김종현 20,000
안종출 5,000	이강희 5,000	이종주 5,000	정기석 5,000	채민숙 10,000	김재기 10,000	성도경 10,000	지대석 5,000	김정은 10,000	심재정 10,000	김혜수 50,000	김정희 5,000	김영숙 30,000	김종석 20,000
안준상 40,000	이경미 5,000	이주철 50,000	정리아 10,000	김현미 20,000	김현미 50,000	채송화 10,000	채송화 10,000	김정현 20,000	안규식 10,000	김희인 10,000	김정음 10,000	김영현 10,000	김종영 10,000
안관승 20,000	이경재 10,000	이준동 10,000	정영준 20,000	천봉실 10,000	나선경 5,000	손삼국 10,000	최경미 10,000	김종관 10,000	안민식 10,000	김지영 10,000	김영호 50,000	김미홍 10,000	김준현 100,000
안근성 10,000	이경희 10,000	이준희 10,000	정미영 10,000	천병태 20,000	박인준 20,000	송민규 5,000	최광희 10,000	김종철 10,000	안석희 10,000	김재훈 10,000	김창규 10,000	김민근 10,000	김중수 10,000
안문수 10,000	이국립 5,000	이재원 20,000	정민 5,000	최경민 10,000	방철호 20,000	송민규 10,000	최기천 5,000	김종하 10,000	안재현 10,000	김성희 10,000	김재원 10,000	김성희 5,000	김중호 30,000
양미아 20,000	이규석 5,000	이재하 5,000	장상모 10,000	최성원 50,000	선봉규 5,000	신민수 5,000	최양욱 20,000	김주환 50,000	안효진 30,000	김필희 5,000	김민재 10,000	김지선 20,000	김지선 20,000
양미화 5,000	이근석 30,000	이진권 10,000	정성민 10,000	최병륜 10,000	송형규 10,000	신병성 10,000	최영자 10,000	김진경 20,000	양구(양승봉) 10,000	김필희 10,000	김병규 5,000	김자옥 10,000	김자옥 10,000
양순환 10,000	이근태 10,000	이현우 10,000	정성원 10,000	최병희 10,000	최용식 10,000	안규녀 10,000	최용식 20,000	김진식 10,000	양어거스틴성 10,000	김해경 10,000	김병규 10,000	김진백 10,000	김진백 10,000
양우성 10,000	이근행 10,000	이찬용 10,000	정서민 10,000	최사라 10,000	이환철 10,000	안현성 5,000	최윤규 10,000	김진영 20,000	양영아 20,000	김해영 10,000	김병규 10,000	김진현 10,000	김진현 10,000
양운정 2,000	이금수 20,000	이창재 20,000	정성호 20,000	최세문 20,000	이환술 5,000	양경진 5,000	최인엽 10,000	김진현 5,000	양화식 20,000	조형준 10,000	경진TRM 20,000	김진현 9,000	김진현 9,000
양인보 20,000	이기호 10,000	이재민 10,000	정성훈 10,000	최수진 5,000	정극철 10,000	양재원 10,000	최재문 10,000	김태겸 10,000	양효정 10,000	진관스님 5,000	고관석 20,000	김병준 100,000	김창근 10,000
양재복 100,000	이기화 10,000	이천환 30,000	정수근 10,000	최순옥 10,000	조두형 10,000	양현식 10,000	최정환 5,000	김태평 20,000	오경룡 10,000	진광수 20,000	고기철 10,000	김보연 5,000	김창순 10,000
양주옥 10,000	이길호 5,000	이태주 10,000	정수현 5,000	최승호 10,000	최승호 10,000	양현식 10,000	방철호 5,000	김태진 30,000	오명실 30,000	김우혁 10,000	김보균 10,000	김성수 5,000	김창현 10,000
양진선 5,000	이남재 5,000	이필원 10,000	정수희 5,000	최승호 10,000	최승호 10,000	오현광 5,000	최준수 10,000	김현정 10,000	오민준 10,000	최기수 10,000	고성일 8,000	김삼근 20,000	김태순 20,000
양해준 10,000	이남철 5,000	이현식 10,000	정순지 20,000	최영림 10,000	정영림 10,000	목용호 30,000	최영섭 5,000	김해경 10,000	오승현 10,000	최성범 20,000	고석주 10,000	김성근 20,000	김학경 10,000
양희석 10,000	이대호 10,000	이현숙 5,000	정승혜 20,000	최영희 10,000	최영희 10,000	오강민 5,000	최영희 10,000	김영희 5,000	오예슬 10,000	최수희 30,000	고세람 10,000	김성범 30,000	김학성 10,000
양홍철 5,000	이동민 10,000	이현숙 100,000	정연실(송경림) 30,000	최우정 10,000	최우정 10,000	우광택 50,000	최윤규 10,000	김진영 20,000	양영아 20,000	최영실 10,000	고수석 10,000	김성식 10,000	김학식 10,000
양기철 10,000	이동섭 10,000	이현우 50,000	최윤식 5,000	최윤식 5,000	최윤식 5,000	원형택 10,000	최인엽 10,000	김진현 5,000	양화식 20,000	최윤실 10,000	고승일 20,000	김성운 5,000	김학신 10,000
양용수 20,000	이동원 10,000	이현진 10,000	최재근 10,000	최재근 10,000	최재근 10,000	유미경 10,000	최재문 10,000	김태겸 10,000	양효정 10,000	최재원 10,000	고정수 20,000	김석진 10,000	김한일 20,000
양주일 20,000	이명수 10,000	이혜란 5,000	정연웅 10,000	최재천 100,000	최재천 100,000	유양봉 5,000	최정환 5,000	김태평 20,000	오예슬 10,000	최태희 10,000	고정환 10,000	김석향 10,000	김해중 5,000
염규현 10,000	이목희 10,000	이혜옥 10,000	정영철 10,000	최진옥 10,000	최진옥 10,000	유병철 5,000	최정환 5,000	김태진 30,000	오명일 30,000	최태연 20,000	고진광 10,000	김선영 5,000	김현성 10,000
염동현 10,000	이무철 20,000	이혜민 10,000	정은미 5,000	최창윤 20,000	최창윤 20,000	유재호 10,000	최성각 10,000	김정현 10,000	오민준 10,000	최기수 10,000	고정훈 30,000	김선미 5,000	김현우 30,000
염철 50,000	이미래 5,000	이혜정 5,000	정인성 10,000	최철영 30,000	최철영 30,000	유재호 10,000	황권주 5,000	김정현 5,000	오승현 10,000	최성범 20,000	고석주 20,000	김성근 20,000	김학경 10,000
영농조합법인부광축산 50,000	이민영 10,000	이향복 20,000	정인준 50,000	최태자 5,000	최태자 5,000	강병수 10,000	황금철 20,000	김태평 20,000	오명일 30,000	최영희 10,000	김성수 5,000	김삼수 20,000	김학성 10,000
오계환 10,000	이병동 10,000	이희원 5,000	정재민 10,000	최필선 20,000	최필선 20,000	강신우 5,000	황병규 10,000	김태진 30,000	오명일 30,000	최영희 10,000	김성수 10,000	김삼수 20,000	김학성 10,000
오만순 30,000	이병동 10,000	이희택 50,000	정재민 10,000	최필선 20,000	최필선 20,000	강신우 5,000	황병규 10,000	김태진 30,000	오명일 30,000	최영희 10,000	김성수 10,000	김삼수 20,000	김학성 10,000
오문택 30,000	이상재 10,000	이희택 50,000	정재민 10,000	최필선 20,000	최필선 20,000	강신우 5,000	황병규 10,000	김태진 30,000	오명일 30,000	최영희 10,000	김성수 10,000	김삼수 20,000	김학성 10,000
오선영 5,000	이상화 10,000	이희택 50,000	정재민 10,000	최필선 20,000	최필선 20,000	강신우 5,000	황병규 10,000	김태진 30,000	오명일 30,000	최영희 10,000	김성수 10,000	김삼수 20,000	김학성 10,000
오세호 10,000	이상호 20,000	이희택 50,000	정재민 10,000	최필선 20,000	최필선 20,000	강신우 5,000	황병규 10,000	김태진 30,000	오명일 30,000	최영희 10,000	김성수 10,000	김삼수 20,000	김학성 10,000
오수영 30,000	이상훈 10,000	이희택 50,000	정재민 10,000	최필선 20,000	최필선 20,000	강신우 5,000	황병규 10,000	김태진 30,000	오명일 30,000				

후원자 명단

마경화 20,000	사람의체널 100,000	50,000	이 병 10,000	이현진 10,000	정승혜 20,000	최소옥 10,000	이동현 10,000	안규녀 10,000	최을규 10,000	김진현 5,000	오용성 10,000	한인숙10,000	권오근 10,000
마명락 10,000	새땅무역 300,000	오계환 10,000	이병동 10,000	이해란 5,000	정연생(송경평)30,000	최승호 10,000	이한결 10,000	인현성 5,000	최의찬 5,000	김태검 10,000	오태정 10,000	한지섭10,000	권오근 20,000
목수승 5,000	서기원 30,000	오만순 30,000	이병재 10,000	이혜숙 10,000	정연준 10,000	최승호 10,000	이한슬 5,000	양경진 5,000	최인엽 10,000	김태평 20,000	유대현 20,000	한창균50,000	권오훈 10,000
문경순 5,000	서동화 20,000	오문택 30,000	이상재 10,000	이혜원 10,000	정근철 20,000	최영희 5,000	정극철 10,000	양재원 10,000	최재문 10,000	김희선 240,000	유성차 10,000	한창택20,000	김휘식 30,000
문미영 5,000	서명호 10,000	오선연 5,000	이상학 10,000	이혜정 5,000	정영철 10,000	최영희 10,000	조두형 10,000	양현석 10,000	최정환 5,000	김해진 30,000	위은량 20,000	한하늬10,000	김기관 10,000
문성권 10,000	서연우 10,000	오세호 10,000	이상호 20,000	이홍준 20,000	정은미 5,000	최영희 10,000	한은애 5,000	오동훈 5,000	최중철 5,000	김한진 10,000	유근준 100,000	허설10,000	김창배 10,000
문수정 20,000	서옥주 20,000	오소영 30,000	이상호 10,000	이황복 10,000	정인성 10,000	최우정 10,000		오명설 5,000	최준수 10,000	김해경 10,000	유명량 10,000	허인숙10,000	유영민 10,000
문옥식 10,000	서정숙 10,000	오수형 10,000	이 선 10,000	이희원 5,000	정재민 10,000	최순익 5,000		오현광 5,000	탁병식 5,000	남영희 5,000	유승희 10,000	허준승10,000	김갑식 30,000
문정숙 10,000	서종호 30,000	오정진 20,000	이희준 10,000	정재근 10,000	정재우 20,000	최재근 10,000		옥용호 30,000	류문초장교회100,000	노승일 10,000	유연기 10,000	한정순님10,000	김정민 30,000
문주연 10,000	서형교 10,000	오준희 10,000	이선호 5,000	이희택 50,000	정재원 10,000	최재천 100,000		우광택 50,000	한상만 10,000	노태완 1,000	유하경 20,000	환성스님50,000	김경재 10,000
민경기 20,000	서희정 10,000	오형석 20,000	이상민 10,000	임강택 20,000	정재환 30,000	최진욱 10,000		원형복 10,000	한상철 10,000	라병국 20,000	윤기홍 10,000	황인선10,000	김경태 10,000
민순옥 10,000	석찬희 10,000	오해근 5,000	이상수 5,000	임광호 30,000	정장태 10,000	최창운 20,000		유미경 10,000	함기문 10,000	류덕용 20,000	윤성진 10,000		김경화 5,000
민항석 10,000	선영숙 10,000	오화선 10,000	이상주 10,000	임금숙 10,000	정지영 20,000	최철영 30,000		유병봉 5,000	허귀석 10,000	류수빈 10,000	윤영선 50,000		김계숙 5,000
민현주 10,000	성낙준 5,000	왕정찬 5,000	이상철 10,000	임동권 10,000	정진영 10,000	최태자 5,000		유병철 5,000	허민석 5,000	류승현 10,000	윤자영 10,000		김관식 20,000
박 건 10,000	성열찬 10,000	우성호 10,000	이상호 5,000	임동선 10,000	정진광 10,000	최필선 20,000		유재욱 10,000	홍성각 10,000	류영석 10,000	윤성희 10,000		김광식 10,000
박경국 5,000	손경일 10,000	우중호 10,000	이세준 20,000	임미자 5,000	정천우 10,000	최현주 10,000		유재호 10,000	황권주 5,000	류영준 10,000	윤지현 20,000		김광아 20,000
박공우 100,000	손경환 10,000	원동우 10,000	이수구 100,000	임병수 20,000	정병수 5,000	최희숙 10,000		유혁권 5,000	황금철 20,000	문경숙 40,000	윤지현 10,000		김광열 10,000
박기호 20,000	손광우 20,000	원종남 10,000	이승자 5,000	임병철 10,000	정한성 5,000	최희은 10,000		육근범 10,000	황병규 10,000	문 민 5,000	윤해정 30,000		김광진 10,000
박남용 50,000	손덕현 20,000	원호진 10,000	이숙희 5,000	임세진 10,000	정해문 10,000	하성환 5,000		윤영석 10,000	황지중 5,000	문상규 2,000	이규 10,000		김구주 10,000
박덕환 10,000	손승호 20,000	유근호 30,000	이승근 20,000	임옥현 10,000	정현근 10,000	하승창 20,000		이강찬 5,000	황헌택 20,000	문석규 1,000	이병진 10,000		김구현 10,000
박동우 5,000	손영주 10,000	유남길 20,000	이승만 10,000	임완민 20,000	정홍삼 10,000	한강아 3,000		이경래 10,000		문성숙 20,000	이병춘 20,000		김근우 30,000
박동호 50,000	손진책 10,000	유명희 5,000	이승영 20,000	임인기 10,000	정화범 10,000	한녹희 30,000		이규문 10,000		문주성 10,000	이상장 10,000		김근우 40,000
박영기 30,000	송두현 30,000	유새벽, 유새날20,000	이아미 10,000	임정원 5,000	정효진 5,000	한다솔 5,000		이금현 10,000	김대현 20,000	민태원 50,000	이선정 5,000		김금평 25,000
박무영 10,000	송상승 10,000	유성식 10,000	이연하 5,000	임재민 10,000	조갑식 10,000	한덕섭 20,000		이명석 5,000	강병태 20,000	박강호 10,000	이수구 10,000		김기원 10,000
박문식 30,000	송상운 10,000	유승주 5,000	이 업 10,000	임재태 10,000	조대영 20,000	한덕희 15,000		이명천 10,000	강삼을 10,000	박정호 30,000	이영선 10,000		김기은 50,000
박미란 10,000	송운화 20,000	유승희 10,000	이영옥 30,000	임창영 5,000	조두연 30,000	한동희 30,000		이명환 10,000	강은향 30,000	박계윤 10,000	이유열 10,000		김기판 10,000
박미화 10,000	송은지 10,000	유시민 10,000	이영주 10,000	임준수 20,000	조우형 20,000	한두희 10,000		이민성 5,000	건강사회를위한다과외사 협회 2,000,000	박금희 30,000	이 은 1,000,000		김길자 20,000
박병우 10,000	송재현 10,000	유현희 10,000	이영철 10,000	임한직 10,000	김근순 5,000	이병학 5,000		이병학 5,000	고광현 50,000	박미경 10,000	이은혜 5,000		김길철 5,000
박병식 30,000	송재천 10,000	유윤숙 5,000	이영훈 10,000	장길수 5,000	조매경 5,000	한서정 10,000		이상일 10,000	고광현 50,000	박민욱 50,000	이일양 20,000		김나눔 5,000
박병우 10,000	송장배 10,000	유은향 10,000	이유순 10,000	장단비 10,000	조민지 20,000	한성희 10,000		이상준 5,000	고기은 3,000	박상일 10,000	이일영 50,000		김상 용 10,000
박복영 10,000	송정호 10,000	유인숙 20,000	이용균 10,000	장단비 10,000	조석희 10,000	한승엽 5,000		이성기 5,000	고려정보통신 3,000,000	박상희 10,000	이정미 10,000		김대영 5,000
박상옥 50,000	송지섭 10,000	유종석 10,000	이용선 50,000	장문호 10,000	조신아 10,000	한영숙 10,000		이성만 5,000	고유민 50,000	박성린 20,000	이정훈 10,000		김대중 5,000
박상일 20,000	신규호 10,000	유지수 8,500	이용갑 10,000	장민환 30,000	조선영 10,000	한윤구 10,000		이연주 10,000	곽정란 10,000	박세진 10,000	이정호 10,000		김도규 20,000
박석양 10,000	신기호 10,000	유진상 10,000	이우영 20,000	장사인 10,000	조성숙 20,000	한인숙 5,000		이영내 10,000	곽 철 10,000	박영주 50,000	이재현 10,000		김동광 10,000
박선숙 5,000	신동식 10,000	유피에스시스템 (주)30,000	이운학 10,000	장선영 15,000	조성호 20,000	한정화 10,000		이영수 10,000	김정호 20,000	박요순 50,000	이종섭 10,000		김동규 10,000
박선오 30,000	신동창 20,000	윤광운 5,000	이원민 5,000	장순천 10,000	조승희 10,000	한진옥 10,000		이영숙 5,000	권익선 10,000	박은영 20,000	이종학 10,000		김동근 20,000
박성기 20,000	신동해 5,000	윤도희 5,000	이원옥 5,000	장영준 10,000	조영삼 10,000	한창현 5,000		이영환 5,000	권익선 10,000	박재완 10,000	이재현 30,000		김동보 500,000
박성은 30,000	신수억 10,000	윤도희 5,000	이원상 5,000	장용훈 10,000	조영석 10,000	한영준 20,000		이영희 5,000	권장생어린이재단 2,000,000	박정숙 30,000	이지은 10,000		김동현 10,000
박성찬 10,000	신순임 5,000	윤두형 10,000	이은경 10,000	장원석 10,000	조영식 10,000	함중운 5,000		이용범 10,000	김정숙 20,000	박종근 10,000	이재경 20,000		김동환 30,000
박소희 10,000	신용철 10,000	윤미화 10,000	이은희 10,000	장유경 10,000	조용진 10,000	허원중 10,000		이용연 10,000	김정동 10,000	박종근 10,000	이학수 20,000		김민진 5,000
박 소 10,000	신용식 50,000	윤방원 30,000	이응세 10,000	장윤진 5,000	조 윤 5,000	허은이 10,000		이윤관 5,000	김경란 20,000	박종원 20,000	이원재 10,000		김민태 5,000
박순성 10,000	신정식 10,000	윤병현1 0,000	이인덕 10,000	장재원 10,000	조윤근 10,000	허음태 50,000		이종문 10,000	김경준 1,000	박진규 20,000	이현주 10,000		김승원 10,000
박애스디 50,000	신준석 10,000	윤서영 5,000	이인수 10,000	장지식 50,000	조용원 30,000	현관승 10,000		이종민 10,000	김경표 10,000	박표규 10,000	임기윤 10,000		김승희 30,000
박영근 20,000	신진현 10,000	윤석원 100,000	이일선 10,000	장준용 10,000	조재학 10,000	이윤식 10,000		이종성 10,000	김광국 9,000	박형준 20,000	임예빈 5,000		김영연 10,000
박영철 10,000	신홍수 20,000	윤석운 10,000	이일영 50,000	장형수 30,000	조정순 10,000	현윤실 10,000		이주형 5,000	김광순 150,000	박홍수 30,000	임지훈 20,000		김미홍 10,000
박용권 20,000	심경란 50,000	윤성진 10,000	이재학 50,000	장희빈 10,000	조준혁 10,000	현애에 10,000		이지용 5,000	김금소,이호준20,000	방성환 10,000	이희규 2,000,000		김민준 10,000
박원규 10,000	심말선 10,000	윤송림 50,000	이재희 5,000	전극재 10,000	조창식 10,000	현종윤 40,000		이진탁 10,000	김민호 20,000	백정은 10,000	장병식 10,000		김민제 10,000
박은하 5,000	심하림 10,000	윤시원 10,000	이정민 10,000	전달수 10,000	조태원 5,000	호영진 15,000		이춘삼 10,000	김명신 10,000	백은경 10,000	장준호 10,000		김민화 30,000
박의용 10,000	심현주 10,000	윤영복 5,000	이정세 10,000	전미란 5,000	조한민 10,000	홍구표 30,000		이한태 10,000	김민희 10,000	서광의5,000,000	장동혁 10,000		김지영 30,000
박이현 20,000	심현희 10,000	윤용근 10,000	이정수 10,000	전병은 10,000	조한범 10,000	홍기호 10,000		이현수 10,000	김부도 20,000	상록추수녀원 20,000	장미혜 10,000		김병구 5,000
박인숙 60,000	안동희 10,000	윤재희 10,000	이정숙 10,000	전병태 10,000	조해기 5,000	홍기호 10,000		익산호요양병원10,000	김태환 5,000	서연우 10,000	장성경 20,000		김병규 10,000
박인순 10,000	안영화 20,000	윤종식 10,000	이정숙 50,000	전성관 10,000	조 현 5,000	홍관희 10,000		김재일 10,000	김혁재 10,000	서혜란 10,000	장성희 5,000		김병균 10,000
박재목 10,000	안상화 5,000	윤종원 10,000	이정영 10,000	전영미 20,000	조현영 10,000	홍관희, 최은서 5,000		장수필 5,000	김상근 30,000	서희순 10,000	장수준 10,000		김병수 10,000
박정근 50,000	안세봉 20,000	윤창빈 5,000	이정주 10,000	전영일 10,000	조현호 20,000	홍순식 10,000		김선숙 10,000	김순수 10,000	석영아 3,000,000	장정옥 30,000		김병준 100,000
박정란 10,000	안승자 10,000	윤창섭 10,000	이정희 5,000	전영일 20,000	조형준 20,000	홍미옥 30,000		김선옥 30,000	김승진 20,000	선정아 30,000	장지혜 30,000		김보연 5,000
박정숙 10,000	안영숙 5,000	윤명근 10,000	이종경 20,000	전용운 10,000	주관수 10,000	홍상운 5,000		김선옥 20,000	김승진 20,000	송영주 20,000	장성희 50,000		김삼수 10,000
박정자 10,000	안정덕 5,000	윤정기 50,000	이종명 10,000	전용순 10,000	주대남 211,200	홍성진 10,000		김선옥 20,000	김양숙 30,000	송용석 10,000	장혜성 10,000		김상기 20,000
박종록 10,000	안정식 10,000	이강희 5,000	이종무 10,000	전정수 10,000	주모미 5,000	홍성희 10,000		김성수 10,000	김성수 20,000	송형욱 10,000	장혜영 10,000		김상기 20,000
박종윤 20,000	안정금 5,000	이경미 5,000	이종민 10,000	전정희 5,000	주영희 5,000	홍숙희 20,000							



자전거로 민통선을 달린다!



자전거투어



매월 넷째주 일요일 (월1회)

참가인원 | 300명 이내 참가비용 | 1인당 10,000원 (파주 특산 농산물 제공)

신청기간 | 매월 첫째주 ~ 둘째주 접수 및 문의 | [www.gto.or.kr](http://www.gto.or.kr) / 031-952-7805